

종교조직 유형론으로 본 대순진리회 유형 연구

김 항 제

신문대학교 · 교수

- | | |
|------------------------|-------------------|
| I. 시작하며 | IV. 기성종파로서의 대순진리회 |
| II. 종교조직 유형론 | V. 대순진리회 유형 변화의 길 |
| III. 대순진리회의 종교조직 유형 분석 | VI. 마치며 |

I. 시작하며

종교조직(religious organization)은 사회조직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종교적 신념과 수행이 개인에서 비롯하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종교는 집단적 현상이기도 해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종교조직은 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고 함께 모여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사회적 단위라는 점에서 사회조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¹⁾ 이때 사회조직이란 특정 목표의 실현을 지향하는 집단적 사회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종교조직도 종교적 목표의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조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조직이 사회집단(social group)과 엄밀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1)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2010), p.349.

처럼 종교조직도 종교집단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사회집단이 소속감과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반면에 사회조직은 구성원 간의 짜임새에 주목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면 종교집단과 종교조직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²⁾

이런 면에서 보면 종교조직은 여타의 사회조직과 같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먼저 종교조직은 종교집단에 비해 목적이 뚜렷하고 규칙과 규범이 더 엄격하다. 다음 종교조직은 ‘조직’으로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적 요소들과 이들 간의 짜임새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종교조직은 종교집단에 비해 구성원의 경계가 분명하고 지위와 역할 체계가 더 전문화·체계화되어 있다. 이러한 종교조직은 종교집단과 달리 그 쓰임새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조직은 전체 사회에 속해 있는 부분집단이면서 종교집단에 비해 규모가 크며 더 분명하고 실리적인 목적과 엄격한 조직체계를 갖춘 집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종교집단은 규모가 커질수록 소속감이나 상호작용이 약해질 수 있는데 종교조직은 이러한 문제를 실리적인 목표, 분명한 지위와 역할 체계, 엄격한 규칙과 규범 등을 갖추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³⁾

이러한 종교조직에 관한 연구는 종교의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고 종교적 신념과 의례가 종교조직의 태도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종교조직의 신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조직과 사회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가 종교조직의 유형론이다. 종교조직에 대한 유형론(typology)은 종교사회학적으로 종교조직을 분석하는 것이며 나름으로 유용하다. 종교조직 유형론에 따라 한 종교조직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말하는 것은 그 종교조직의 유

2) 비판사회학회 엮음, 『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12), pp.191-192.

3) 같은 책, p.192.

형변화를 피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상형(ideal type)에 따른 유형론이 종교조직의 유형이 현실적 적합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한 종교조직의 유형적 분석을 피하는 것은 학문적 책무일 수 있다. 그로 해서 한 종교조직의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게 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조직은 매우 다양하고, 종교조직이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변화도 무쌍하기 때문에 종교조직을 유형별로 범주화함으로써 종교조직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종교조직의 유형론적 이해를 통해 종교 자체의 정체성 정립과 발전을 위한 비판적 성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신종교운동(new religious movements)에 대한 종교조직의 유형론적 성찰은 자신의 정체성 정립과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한국의 종교사회학계에서 언급된 대순진리회의 종교조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시도되는 대순진리회에 대한 종교조직 유형의 연구는 대순진리회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따르고 있다.⁴⁾ 이는 주관적 평가라고도 할 수 있으나 종교조직에 대한 질적 연구⁵⁾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대순진리회의 유형이 성찰되면 그에 머무르지 않고 유형 변화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정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종교조직의 유형론을 살펴보기로 한다.⁶⁾

4) 종교조직 유형론으로 본 대순진리회의 유형 연구에는 '대순진리회 교무부 연구위원' 37명이 참여했다. 질적 연구를 위해 정성평가 설문지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했음을 밝힌다.

5) 여기서 말하는 질적 연구란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식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초점집단(focus group interview) 연구 등이 있다.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서울: 아르케, 2005), p.18.

6) 종교조직의 유형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서구 기독교적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종교조직의 유형론에 대한 설명을 한국종교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조직의 유형론으로 본 한국의 신종교에 대해 유형론적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한국 신종교의 유형변화 곧 발전을 염두에 둔

II. 종교조직 유형론

1. 교회와 종파

종교조직에 대한 유형론이 베버(Max Weber)로부터 시작되었고 베버는 서양의 기독교조직을 교회(established church)와 종파(sect)로 유형화했다. 비록 그 유형이 이념형(ideal type)이기는 하지만 그 비교되는 특징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점을 비교해보면 규모면에서 교회는 대규모이며 종파는 교회에 비해 소규모이다. 교회는 또한 제도화되어 있고 타종교조직과의 관계는 수용적이며 주변의 문화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종파는 배타적인 조직으로 교회에 비해 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회원⁷⁾들은 사회에 열려 있고 헌신이나 동조를 덜 요구하는 포괄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종파는 회원의 자격은 자발적이나 어떤 조건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특별한 교리에 대한 믿음이나 수행에 대해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와 종파라고 하는 유형에 다른 유형을 말한 사람은 트뢰치(Ernst Troeltsch)였다.⁸⁾ 그는 베버의 두 가지 유형과 다른 기독교조직의 유형을 말하고 있다. 그는 세 가지 유형을 말함으로써 종교집단이 사회와의 관계에 따라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유형화한 것이 교회, 종파 그리고 신비주의(mysticism)이다.⁹⁾

때 많은 시사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7) 종교조직의 회원은 일반적으로 신도 혹은 대순진리회의 경우 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종교사회학적 개념으로 회원(member)으로 부르고자 한다.
- 8) 트뢰치의 유립기독교 중심의 종교조직에 대한 유형론에 대해서는 김항제, 『통일교의 학연구 I』 (아산: 선문대출판부, 2002), pp.265-283.
- 9) 신비주의는 일반적으로 종교조직의 한 형태라기보다는 종교집단의 종교적 표현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종교조직의 한 유형이라고 보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신비주의도 제의(cult)라는 종교조직의 한 유형으로 말하고 있다.

트릴치의 유형론에서 그 특징을 말해보면 먼저 교회는 보다 개방적이며 출생에 기초하여 회원의 자격을 결정한다. 믿음은 자연적인 과정이어서 회심보다는 종교교육이 증시된다.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계는 수용하고 타협하며 변화를 용인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총은 의례와 성례전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진다. 공식적인 의례를 위해 성직자가 필요하며 위계질서를 확립하게 된다.

그러나 종파는 배타적인 종교조직이고 폐쇄적이며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자원(自願)에 의한다. 믿음은 급격한 변화를 통한 회심이 주를 이룬다.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계는 적대적이며 불변을 주장한다. 구원은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의례나 성례전은 아직 공식적이지는 않으나 있다면 엄격한 준수를 원한다. 따라서 성직자는 위계질서화 되지 않고 열심과 헌신에 의해 리더십을 갖는다.

이와 같은 종교조직 유형의 특성은 베버와 다를 바 없으나 그가 제시한 신비주의 유형은 그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신비주의는 반드시 배타적이거나 개방적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는 종교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과의 직접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는 종파와 같이 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배척당하는 면에서 배타적이지만 제도 내에서도 신과의 직접 교통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배타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그들 또한 믿음이 독립적이어서 회심이 중요하며 사회와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의례에서 자유로우며 성직자의 위계질서를 배격하는 경향이 짙다.

이와 같은 베버와 트릴치의 유형론은 이념형에 의지하고 있으나 적어도 경험적인 연구를 위한 통찰력과 가설을 제공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베버와 트릴치의 유형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베버와 트릴치의 유형론의 문제점 곧 보다 정교한 하위 유형들과 범주들을 보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⁰⁾ 또한 베버와 트릴치의 유형론에

10) 그와 같은 학자로는 현대에 이르러 J. Milton Yinger, *Religion in the Struggle for Power* (Durham: Duke Univ., 1970); Roland Robertson, *The Sociological Interpretation of Religion* (New York: Schocken Books Inc., 1984); Bryan R. Wilson,

대해 동적인 변화의 유형 곧 각 유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향도 있다. 대개의 경우 종파가 교회가 되는 아니면 신비주의가 교회가 되는 변화를 말하나 교회가 종파 혹은 교파¹¹⁾로 혹은 종파가 소멸되는 변화 그리고 신비주의가 교파가 되는 경우도 연구되고 있다.¹²⁾

이미 언급한 것처럼 베버와 트뤼치에의 종교조직에 대한 유형론이 현실적이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조직의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비교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이는 베버와 트뤼치의 이념형이 현실의 종교조직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종교조직이 다양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교회, 교파, 종파 그리고 제의(cult)로 나누는 종교조직의 유형론¹³⁾이 있는가 하면 그에 덧붙여 교회를 다시 두 가지 유형 곧 세계교회와 에클레시아¹⁴⁾로 종파를 다시 두 가지 유형 곧 기성종파와 종파로 나누어 모두 여섯 개의 유형을 말하는 유형론도 있다.¹⁵⁾

먼저 제의란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지도자에 의해 인도되는 비교(秘敎)적 혹은 신비적 이념들을 주장하는 작은 종교조직을 말하기 때문에 종파보다 작고 느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흔히 지역적이고 그 수명이 비교적 짧다. 카리스마 지도자가 죽거나 사라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붕괴되는 경향이 있다. 종교조직의 변화로 볼 때 제의가 지속되고 지도력 계승의 구조와 수단을 발전시켜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제의는 종파 혹은 교파 형태가 될 수 있다. 제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고 개인과 초자

Religious Sects (New York: McGraw-Hill, 1970) 등이 있다.

11) 유럽과 달리 미국과 같이 확립된 하나의 교회가 없고 단일한 종교조직이 없는 경우 베버가 말하는 교회라는 유형보다는 교파(denomination)라는 유형의 개념이 더 적절함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H. Richard Niebuhr,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1957), pp.11-12.

12) 김항제, 앞의 책, p.285.

13) Howard Becker, *Systematic Sociology* (New York: Jone Wiley & Sons, 1932), p.21.

14) 에클레시아(ecclesia)는 회랍어로 교회와 동일한 의미이나 종교조직의 영역에 따라 에클레시아를 세계교회와 다르게 분류하기도 한다. 이원규, 앞의 책, p.361.

15) J. Milton Yinger, op. cit., p.34.

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변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는다. 그와 같은 예로 하레 크리슈나운동(Hare Krishna Movement)¹⁶⁾, 3HO(Healthy-Happy-Holy Organization)¹⁷⁾, 크리스천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¹⁸⁾ 등을 들 수 있다.¹⁹⁾

다음 종교조직의 유형 중 세계교회란 국제적인 교회를 말한다. 세계교회는 조직을 세계적으로 확대시켜 놓은 교회로서 가톨릭의 경우가 될 것이다. 가톨릭의 영향은 세계적이며 단일한 조직구조를 갖고 있으나 여러 사회집단을 동화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에클레시아는 세계교회와 달리 국가적인 조직을 갖는 교회를 말한다, 영국의 성공회나 독일의 루터교처럼 국교의 성격을 어느 정도 띠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유대교나 이란의 이슬람 등도 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²⁰⁾

또한 기성종파(established sect)도 있을 수 있다. 종파는 시간이 흐른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는 것이 종파 유형이다. 기성종파는 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고 회원들의 민주적 참여와 탈관료적인 점에서 종파와 비슷하나 다소 관료화된 조직을 갖게 된다. 기성종파의 회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종파의 회원들보다 높고 안정적이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서의 종교적 표현은 감정적이지 않고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점은 기성종파가 교회와 종파 사이에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이와 같은 기성종파에는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²²⁾, 몰몬교(The Mormons)²³⁾, 퀘이커(Quakers)²⁴⁾, 통일교회(Unificationism)²⁵⁾ 등을 들 수 있다.

16) Christopher Partridge, *New Religions A Guid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187-189.

17) <http://en.wikipedia.org/wiki/3HO>

18) Christopher Partridge, op. cit., pp.39-40.

19) 이원규, 앞의 책, p.362.

20) 같은 책, pp.358-359.

21) 같은 책, pp.360-361.

22) Christopher Partridge, op. cit., pp.40-42.

23) *ibid.*, pp.32-35.

24) <http://en.wikipedia.org/wiki/Quakers>

2. 종교조직 유형의 발전

종교조직의 발전은 다른 유형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종교조직의 발전 방향을 교회와 종파를 양극에 놓고 종파에서 교회에로의 일방적 방향성만 관심한다든지 하는 경우다. 그러나 종파의 모두가 사회의 질서나 제도화된 가치체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있다. 종파도 기성사회 제도나 가치를 인정하고 적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파도 사라지거나 지리멸렬됨으로써 종교조직의 유형을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형의 발전 방향을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종교조직 유형의 대 사회적 태도 변화의 방향을 종파에서 교회에로 발전한다고 하는 일방적 운동방향을 고집하기보다는 쌍방적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곧 종파가 기성종파나 교회에로 변천해갈 가능성도 열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 역방향의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종교조직의 유형들이 일직선상에 있는 양극 중 어느 한쪽의 극점에서 그 대칭극점에 완전히 도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곧 종파로 시작한 조직이 교회형태에서 그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일방적 사고는 잘못된 것이다. 현재 나타나 있는 많은 종교조직의 형태는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도 종파도 아닌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제도와 인간의 필요가 계속 변천해 가고 있는 유동적인 사회에서는 종교조직의 유형 간 변화는 지속될 것이다.

다음 어떤 종교조직이 점유한 지점이나 운동방향이 그 집단자체의 내적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가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종교조직의 내적 특성들뿐만 아니라 그 집단이 처해 있는 사회적 여건들도 그 변화의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종교조직

25) Christopher Partridge, op. cit., pp.71-74.

의 유형을 결정지어 주는 역동적 요소들은 그 조직의 변화할 수 없는 특성으로보다는 한 변수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형적 특성에 의해서 그 형태가 결정된다고 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형태로 변해 가는 종교현상은 설명할 길이 없다. 예를 들어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종교조직은 개인 구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세속적 질서와 안정을 관리하는 세상질서와 가치에 순응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똑 같은 특성을 지닌 집단이 구원에 대한 다른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똑 같은 집단이 과거에는 보수적이었는데 지금은 급진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 종교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게 된다.

Ⅲ. 대순진리회의 종교조직 유형 분석

앞서 살펴본 교회와 종파, 그리고 종파와 교파의 유형 분류에 따라 대순진리회를 어떤 유형으로 말할 수 있는가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대순진리회 내부자의 정성평가에 따른다. 대순진리회의 정성평가에 따른 유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²⁶⁾

1. 대순진리회의 유형에 대한 정성평가

1) 대순진리회의 규모²⁷⁾는 ‘비교적 큰 편이다’ 73%, ‘크다’ 19%로 평가되었으며, ‘아주 작은 편이다’ 8%도 있다. 따라서 규모에 대한 정성평가는 비교적 큰 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교회와 종파 유형의 특성에 따른 분석은 이원규, 앞의 책, p.356. <표 1> 교회와 종파의 특징에 따르면 그에 의한 대순진리회의 유형적 분석은 대순진리회 내부자 곧 교무부 연구위원들 정성적 견해에 따른다.

27) 규모의 비교를 위해 참고 사항으로 원불교의 규모를 제시해 보았다. 원불교는 2005년 인구센서스에서 약 12만 5천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2) 대순진리회 회원(이하 도인)의 자격은 ‘소수출생 대다수 신입에 의존’ 78%, ‘신입에 의존’ 16%로 평가되었으며 ‘대다수출생 소수신입에 의존’ 3%와 ‘무응답’ 3%도 있다. 따라서 도인의 자격은 소수출생 대다수 신입에 의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도인의 가입범위는 ‘열려있다’ 78% ‘비교적 열려있다’ 22%로 평가되었으며 도인의 가입범위는 열려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타종교조직과의 관계는 ‘비교적 수용한다’ 49%, ‘수용한다’ 46%로 평가되었고 ‘거부한다’ 5%도 있다. 타종교조직과의 관계는 수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진리에 대한 태도는 ‘보편적이다’ 55%, ‘비교적 보편적이다’ 21%로 평가되었으며 ‘특수하다’ 16%, ‘약간 특수하다’ 8%도 있다. 진리에 대한 태도는 보편적이라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구원관은 ‘윤리와 도덕으로’ 44%, ‘상제의 가피와 의례로’ 40%로 평가되었으며, ‘비교적 가피와 의례로’ 11%, ‘약간 윤리와 도덕으로’ 5%도 있다. 구원관은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상제의 가피와 의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평가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구원관은 양 축이 같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7) 구원의 지향성은 ‘이 세상적이다’ 84%, ‘비교적 이 세상적이다’ 11%로 평가되었으며, ‘약간 저 세상적이다’ 3%도 있다. 구원의 지향성은 이 세상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종교적 의례는 ‘공식적이다’ 70%, ‘비교적 공식적이다’ 11%로 평가되었으며 ‘약간 공식적이다’ 14%, ‘공식적이지 않다’ 3%와 무응답 3%도 있다.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의례는 공식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성직자는 ‘약간 비전문적이다’ 35%, ‘전문적이다’ 22%, ‘대부분

전문적이다' 24% '비전문적이다' 9%로 평가되었으며 설문 외의 항목을 설정하며 '약간 전문이다' 10%도 있다. 대순진리회의 성직자는 전문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0) 조직구조는 '비교적 관료적이다' 38%, '약간 평등하다' 29%, '관료적이다' 22%, '평등하다' 14%로 평가되었으며 '무응답' 2%도 있다. 이는 대순진리회의 조직구조가 관료화되어 간다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11) 경전해석의 태도로는 '비교적 자유롭게 해석한다' 54%, '약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24%, '자유롭게 해석한다' 11%,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8%로 평가되었으며 '무응답' 3%도 있다. 대순진리회의 경전해석 태도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문자적으로도 해석하고 있다는 인식도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세상과의 관계는 '타협적이다' 46%, '비교적 타협적이다' 38%, '약간 타협적이다' 14%, '비타협적이다' 2%로 평가되었다. 이는 세상과 어울려 살아간다고 하는 공생의 태도가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인식임을 알 수 있다.

13) 도인의 사회적 지위는 '약간 하층이다' 65%, '비교적 중산층이다' 20%, '하층이다' 11%로 평가되었으며 '무응답' 4%도 있다. 대순진리회 도인의 사회적 지위는 하층에서 점차 중산층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인식임을 알 수 있다.

14) 사회윤리적 성격은 '비교적 보수적이다' 68%, '보수적이다' 19%, '약간 급진적이다' 11%, '급진적이다' 2%로 평가되었다. 이는 사회윤리적 성격이 보수화되어 있다는 인식임을 알 수 있다.

15) 물질 자원은 '비교적 풍부하다' 58%, '약간 제한적이다' 35%, '풍부하다' 2%, '제한적이다' 2%로 평가되었다. 이는 대순진리회의 물질 자원인 비교적 넉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2. 대순진리회의 유형에 대한 분석

대순진리회의 유형에 대한 정성평가를 교회와 종파의 유형의 특징에 맞춰 분석하기 위해 비교기준이 되는 교회조직과 종파조직의 특징을 베버와 트윌치의 교회·종파 유형론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물론 이러한 유형론적 특징은 베버와 트윌치 이후의 연구자들이 보완한 진술을 종합하여 반영하고 있다.²⁸⁾ 다시 말하면 베버와 트윌치의 유형론은 교회종파 이분법의 모형 설계가 불완전하기는 해도 그것은 보다 비교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위한 풍부한 통찰력과 가설을 제공해주고 있다. 여기서는 교회와 종파의 특징 비교표에 따라 대순진리회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교회와 종파의 특징

	특징	교회	종파
1	규모	크다	작다
2	회원의 자격	출생에 기초	신입에 의존
3	회원의 가입범위	포괄적	배타적
4	타종교조직과의 관계	수용적	거부적
5	진리에 대한 태도	보편적	특수적
6	구원관	은총과 의례 강조	윤리적이며 도덕적
7	구원의 지향성	이 세상적	저 세상적
8	종교적 의례	공식적	감정적
9	성직자	전문적	비전문적
10	조직구조	관료적	평등적
11	경전해석	현대주의	근본주의
12	세상과의 관계	타협적	비타협적
13	회원의 사회적 지위	중상류층	하층(박탈계급)
14	사회윤리적 성격	보수적	진보적
15	물적 자원	풍부	제한적

28) 이러한 비교표는 일반화를 위한 이념형적 경향이 있기는 하나 종교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두 유형으로서 교회와 종파라고 하는 유형의 축(polar)이기 때문에 유형 변화에 대한 모색을 짐작할 수 있어 그 의미가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대순진리회의 규모는 종파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큰 규모의 교회 유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 규모의 크고 작음의 기준은 정하기 어렵지만 대순진리회의 도인 수가 기성 종교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 대순진리회의 도인 자격은 초기의 의지(意志)적인 성인 회심 곧 신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파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순진리회 도인의 범위는 종파유형처럼 입회의 조건이 까다로워 배타적인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포괄적으로 열려 있어 교회의 특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순진리회는 교회유형에 가까운 종파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타종교조직과의 관계는 종파의 선민의식이 내재된 거부형이라기보다는 수용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조화하고자 한다. 물론 선민의식이 내면에 있을 수 있지만 증산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매우 수용적이며, 조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종교조직과의 관계에서 볼 때 교회유형에 가까운 종파라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진리에 대한 태도는 종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종파처럼 독점의식이 내재된 특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순진리회의 진리는 절대적이어서 독점적이며 다른 진리와는 통합을 주장함으로써 결코 상대적일 수 없다. 이는 어느 종교조직의 가르침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진리에 대한 태도는 어느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보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 면에서 특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대순진리회는 종파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구원관은 종파의 경우처럼 윤리적 엄격성이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상제의 은총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다. 또한 대순진리회의 구원관은 윤리와 도덕에 의한 구원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교회유형과 종파유형을 잘 조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구원관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의례는 감정적

이라기보다는 지성적이 되었으며 비공식적이라기보다는 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 의례의 하나인 치성의 경우 감정적이거나 격정적이지 않다. 교회유형처럼 의식이 중요하고 그에 참여하는 것이 통과 의례로서 치성을 드리는 목적이 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구원지향성은 이 세상적임에 틀림없다. 대순진리회는 후천개벽의 도통진경을 완성하고자 하는 뜻과 목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구원지향성은 천년왕국운동의 전승이며 피안적인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다. 종파가 지향하는 구원이 저 세상적임에 비해 대순진리회의 구원지향성은 이 세상적이어서 교회의 유형적 특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성직자는 전문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계질서도 분명하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의 성직자는 모두가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성직자 양성의 종립대학이 있으나 성직자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고 성직자가 되는 길도 딱히 종립대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순진리회의 종파적 특징을 아직 벗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대순진리회는 유형적 특징 중 성직자의 측면에서 볼 때 교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조직구조는 종파의 평등조직이라기 보다는 교회의 관료조직적이다. 엄연한 위계질서가 있고 그에 따른 조직구조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통솔의 의미가 강한 관료조직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계질서가 관료주의화한 것은 아닐지라도 대순진리회의 조직구조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수직구조에 가깝다고 하겠다.

대순진리회의 경전해석의 태도로 미루어 본 대순신학(대순종학)은 문자주의적 근본주의라기보다는 교리와 신앙에 철저하고자 하는 경향의 근본주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순진리회의 신학은 근본주의적 특징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순진리회의 신학적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증산의 가르침은 매우 현대주의적이다. 현대주

의가 전통에 대한 재해석과 현대문화와의 소통에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면 대순진리회 신학은 매우 그렇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신학은 교회적 혹은 종파적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순진리회가 갖는 세상과의 관계는 타협적이기도 하고 비타협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타협적이라고 다수가 평가함에 따라 종파의 특징처럼 세상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다거나 무관심하지 않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오히려 세상과의 관계에 동조적이라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그렇다면 대순진리회 도인들의 계층은 어떠할까? 교회의 계층이 주로 중·상층이 많은 것에 비해 대순진리회는 종파처럼 주로 하층이고 박탈계층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계층이동의 현상이 대순진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조직의 유형론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종파의 특징이 대순진리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사회윤리적 성격은 현상을 옹호하는 보수적 사회윤리의 성격을 지닌 교회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변화를 촉구하는 급진적 사회윤리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으나 대순진리회는 체제나 구조의 변화를 피하기 보다는 체제나 구조에 순응하면서 대응하는 보수적 사회윤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파로서의 종교조직이 갖는 이율배반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종파가 물질적 혹은 시설의 자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교회는 종파에 비해 풍부하다. 대순진리회는 비교적 물질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어 교회와 종파의 특성을 아우른 종교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타난 대순진리회의 유형적 특징의 변화추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표2) 대순진리회는 종파유형으로서 뚜렷이 나타내는 특징은 거의 없고 모두 교회유형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종교조직적 유형은 기성종파(established sect)라고 할 수 있다.

IV. 기성종파로서의 대순진리회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기성종파로서의 유형적 특징을 갖는 대순진리회는 그 특징으로 볼 때 도인의 자격에서 대다수 신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순진리회의 구원관은 여전히 윤리와 도덕이 강조되고 있으며, 도인의 사회적 지위가 아직은 하층이 많은 것을 보아 종파유형의 특성에 가까운 항목은 15개 항목 중 3개에 지나지 않는다. 도인의 가입범위가 열려 있으며, 타종교조직과의 관계에 수용적이고, 구원의 지향성은 이세상적이며, 종교적 의례가 공식화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아 교회유형의 특성에 가까운 항목은 15개 항목 중 역시 4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순진리회의 유형적 특성의 변화추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²⁹⁾

<표 2> 대순진리회의 유형적 특성의 변화추이

교회 ↑			*	*			*	*							
	*				*				*	*	*	*		*	*
		*				*							*		
종파															
유형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9) 표2에서 y축은 '정성평가서'의 양 극점은 교회와 종파로 보고 그에 따른 분포도이며 x축은 문항을 나타낸다.(첨부 '정성평가서' 참조)

나머지 규모의 비교, 진리에 대한 보편적 태도, 성직자의 전문성, 조직구조의 관료화, 경전해석의 자유, 세상과 타협하는 관계성, 사회윤리적 성격의 보수화, 물질 자원의 풍부성 등의 항목 곧 15개 항목 중에서 8개의 항목이 종파유형의 특징에서 교회유형의 특징으로 상당히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규모에 있어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평가하나 아직까지는 교회유형처럼 대형화 되었다고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 진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 특수하여 배타적 태도를 갖는다고는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성직자의 전문화는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조직구조 또한 이미 상당한 관료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며 경전해석은 비교적 자유로우나 여전히 문자적인 해석도 남아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세상과의 관계는 타협적이라고 평가되어 세상으로부터 도피적이지 않다고 평가되며 사회윤리적 성격에서는 급진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평가되었고 물질 자원에서는 비교적 풍부해서 세상을 향한 봉사에 인색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이미 위에서 논의한 바처럼 대순진리회는 종파유형으로 출발했으나 교회유형으로 이행되는 변화에 마주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있는 특징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기성종파로서의 유형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순진리회는 이제 기성종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유형변화의 특징 곧 기성종파의 의미를 각각의 범주에 따라 말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도인의 자격에 관한 것이다. 도인의 자격에서 종파유형의 특징 곧 출생보다는 신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성종파로 변화되면서 도인의 자격이 출생에 상당부분 의존한다면 그 종교조직은 규모에 있어 대규모가 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출생에 의존하는 만큼 신입에 의한 의존도가 계속 높을 때 대규모로 유형변화는 긍정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도인의 자격에 있어서 신입에 의한 의존도를 높여려면 도인의 가입범위가 지금처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도

인의 가입범위가 까다롭게 되는 것은 종교조직내의 기득권 세력에 의한 규제가 커져간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포괄적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출생에 의한 차세대 도인과 신입 도인과의 상호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도 유형변화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다. 규모의 크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도인과 새로 유입된 도인의 증가는 물론 그들의 상호 조화가 필요로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인의 자격이 포괄적이고 열려있어야 한다. 또한 차세대 도인과 새로운 도인 사이의 조화는 종교조직의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차세대 도인은 이미 종교조직의 기득권과 친화성을 갖고 있는데 비해 새로운 도인은 문화지체현상이 있다. 따라서 차세대 도인들이 열려있는 태도와 포괄적이지 않으면 새로운 도인과의 갈등과 마찰이 있을 수 있어 결국 새로운 도인의 이탈현상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미 있는 유형으로 변화하기가 가능하지 못하게 된다.

다음 대순진리회의 구원관에 대한 정성평가는 매우 독특하다. 상제의 가피와 의례에 의존하여 구원을 받고자 하는 도인의 태도와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도인의 태도가 거의 같은 비율이다. 이는 구원의 지향성과 관련이 깊는데 구원의 지향성이 저 세상적이 아니라 이 세상적임을 밝히고 있어 현실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원의 지향성은 가피와 의례가 강조되는 구원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며 대순진리회는 윤리와 도덕도 여전히 강조되는 것을 보면 독특하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종파유형의 장점을 잃지 않는 유형변화는 매우 의미가 깊기 때문이다.

대순진리회가 시행하는 종교적 의례는 종파유형처럼 감정적 곧 즉흥적이지 않다. 교회유형의 그것처럼 지성적이지 감정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경우 걱정적인 몸짓이나 열광적인 찬송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의식의 순서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 조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의례가 교회유형처럼 공식적인 것은 서양기독교중심의 유형론이 가지는 한계가 드러나는 평가항목이어서 그런 것 같다. 유교적 바탕을 무시하지 않는 한국 종교로서 대순진리회는 종교적 의례가 매우 중시되며 동시에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순진리회 역시 종교적 의례가 형성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공식적인 제정을 통해 종교적 의례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본다. 기성종파로서의 대순진리회가 유형변화를 꾀할 때 종교적 의례의 발전 곧 현대 사회에 대응하는 의례적 발전은 매우 중대하기 때문이다. 기성종파 대순진리회는 긍정적 유형변화를 위해 대순진리회의 정체성을 담보하면서도 미래 세대에 까지 전승이 되는 의례를 끊임없이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직자의 경우 기성종파로서의 대순진리회는 전문적이기도 하고 비전문적이기도 하다. 교회 유형처럼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성직자가 많지 않다. 비록 성직자 양성을 위한 종립대학이 있으나 종립대학의 졸업이 성직자가 되기 위한 법적 필수 과정은 아니며 아울러 전통적 의미의 성직자라고 하는 위계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집권적인 통치구조의 위계질서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는 성직자의 경우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성종파인 대순진리회가 교회유형으로 변화를 꾀한다면 자연스럽게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성직자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경전해석은 문자주의나 근본주의를 넘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해석한다고 평가되었다. 교회유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대주의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다. 현대주의가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전통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면 대순진리회도 현대주의가 자리하고 있으나 역시 문자적인 해석을 견지하는 평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순진리회는 전통에 대한 재해석은 물론 현대문화와 조화하고자 하는 경전해석의 태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면 대순진

리회는 종파유형의 그것처럼 현대문화와 적대적이라기보다는 교회처럼 현대문화와 조화하고자 한다. 대순진리회가 자신의 교리에 대해 독점적이고 폐쇄적이라면 종파유형의 근본주의와 다를 바 없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윤리적 성격을 보면 이율배반의 과정에 놓인 것이 기성종파로서 대순진리회라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교리에 따르면 후천개벽을 통한 상생사회를 이룩하는 길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세계의 급진적인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도통진경은 대순진리회가 추구해온 이상사회를 현실로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⁰⁾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성종파로서의 대순진리회는 현상을 타파하기 보다는 옹호하는 보수적 사회윤리의 태도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종교조직이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와 세계변혁을 피하기 보다는 현실에 순응하면서 개량하고자 하는 보수적 사회윤리를 실천해왔다고 볼 수 있다.

V. 대순진리회 유형 변화의 길

종파유형으로서의 특징을 대부분 갖고 있었던 대순진리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성종파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대순진리회는 앞으로 어떤 유형변화가 올 것인가? 아니면 유형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나아가 기성종파이면서도 종파유형의 하위 종파유형으로 제시된 현상 수용의 수용종파가 될 것인가 혹은 현상을 타파하는 변혁종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변혁을 정체성으로 하면서 수용종파가 될 것인가? 나아가 또 다른 하위의 종파유형에서 볼 때 대순진리회는 유

30)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p.16.

토피아종파에서 개혁종파로 유형변화를 피할 것인가? 다른 경우의 유형변화도 마찬가지다. 또는 증산교의 교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대순진리회라면 증산교 내에서도 어떤 교파 유형인가 아니면 어떤 교파로 형성되었는가 그도 아니면 어떤 교파유형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는 대순진리회의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화의 틀이 될 것이다.

이 때 대두되는 문제라면 유형변화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조직의 유형변화의 방향은 일방적인가? 대순진리회의 유형변화에서 볼 때 기성종파 대순진리회는 교회유형으로의 변화만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와 같은 유형변화의 방향을 양방향으로 보는 것이 오늘의 종교사회학의 견해다.³¹⁾ 종교조직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다거나 주변 사회의 변화 그리고 종교조직의 내부가 변화하는 데서 종교유형은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조직의 유형변화를 종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종파의 유형변화의 결정적인 변수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며 그에 대한 종교조직 내부의 대응에 의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이다.³²⁾ 이 때 유형변화의 방향은 교회유형으로의 변화도 있지만 제의(cult)로나 결국 소멸로의 변화도 있을 수 있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종교조직이 소멸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경제사회적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그 변화를 미처 깨닫지 못하면 종교조직의 세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또한 종교조직의 내부의 정치적, 교리적 갈등이 생기면 분열에 이를 것이고 나아가 소멸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양방향의 변화를 염두에 두는 것은 종교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조직으로서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종교조직의 유형론적 결론이다. 기성종파로서의 대순진리회도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런 이

31) 김종서, 앞의 책, p.125.

32) 이원규, 앞의 책, p.381.

유에서다. 지금부터는 그와 같은 견해에 따라 기성종파 대순진리회가 갖는 유형적 특성에 대해 어떤 태도와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규모는 커져야 한다. 그러나 커진 규모가 부정적인 교회유형의 특징을 갖게 된다면 역사적 시행착오와 반복에 불과한 것도 인식해야 한다. 바람직한 규모의 확대를 위해 도인의 자격을 지금처럼 대다수 신입에 의존하는 도인의 자격과 열려있는 도인의 가입범위를 견지해야 한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회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인이 유입되어 소위 차세대 도인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때 차세대 도인들의 포용력이 매우 중요하며 도인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열려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타종교조직과의 관계에서 지금처럼 수용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세상과의 관계도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 기성종파로서의 대순진리회는 교회유형으로의 변화가 지체될 것이다. 유형변화의 지체현상은 사회로부터 고립을 초래할 것이고 종파유형이나 제의로의 변화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둘째 규모의 확대를 위해 진리에 대한 태도는 변화해야 하고 교리는 발전해야 한다. 먼저 진리에 대한 태도는 다양성을 수납함으로써 보편주의화해야 한다. 종파유형이 진리에 대한 태도를 독점의식 속에서 특수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종파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필요하지만 스스로 폐쇄적이 되면 누구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규모의 확대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성종파로서 대순진리회는 진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 독점의식을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다양성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진리란 천도이지 대순진리회만의 소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리는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이 있어야 한다. 현대문화를 포용하여 현대문화로부터 소외되지 않음으로써 현대인을 진리로 초대하려면 교리는 거듭 발전해야 한다. 신앙의 발전 없이 교리의 성찰도 없지만 교리의 인도 없이 신앙의 발

전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구원관이 윤리에서 은총으로, 도덕에서 의례로 변화함으로써 교회유형이 되어가는 기성종파로서 대순진리회는 종교적 의례에 있어서도 지성적이고 공식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윤리와 도덕을 굳게 지키되 은총과 의례를 중시하는 구원관을 수립해야 하고 종교적 의례 또한 역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적 의례를 공식화하기 위해 그에 대한 교리의 발전을 모색하고 의례의 공식화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원의 지향성이 피안적이 아니고 이 세상적이기 때문이다.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해원상생하는 도통진경의 세상을 성취하고자 하는 대순진리회는 그에 대한 책임만을 강조함으로써 가입과 실행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상제의 은총을 통해 도인들의 겸손한 인격을 성장시켜야 하고 인간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넷째 종교조직의 구조는 교회유형처럼 위계질서에 의한 관료조직이어서는 규모의 확대에 있어 문제가 많게 된다. 관료조직은 관료주의화 곧 지배와 명령을 강조하는 조직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파유형의 특징인 조직구조의 평등성을 보전하면서 리더십은 봉사를 통한 명예가 존중시되는 조직구조가 되어야 한다. 성직자도 전문적이면서 비록 전문가라 할지라도 위계질서의 성직자가 아니라 종교조직의 질서를 위한 수단에 그치게 해야 한다. 또한 도인들의 위계질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칫 잘 못하면 도인들 간에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직자 구조의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기성종파로서의 대순진리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다섯째 현실의 변화를 촉구하는 급진적 사회윤리를 가르침으로 하는 종파유형이 실제로는 교회처럼 현상을 옹호하는 보수적 사회윤리를 행하게 되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령 열세의 규모를 가진 종파가 급진적 사회윤리를 현실화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그러나

종파유형이 내세운 후천개벽에 대한 비전이 급진적 사회운리를 요청한다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경우 현대 우리민족의 고난과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역사에서 세월이 지난 후 얻을 것은 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한국적이라고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힘입어 한국 전통의 부활이 의미 있게 되었던 시대적 유행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후천개벽의 사회를 근본에서부터 이루고자 하는 교리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자원을 봉사하는 곳에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데 대순진리회의 3대 중요사업³³⁾의 실천은 매우 바람직한 유형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VI. 마치며

글을 마치면서 덧붙일 점은 기성종파로서 대순진리회는 유형의 변화에 무관심하거나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대순진리회도 자연스럽게 교회유형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무기력한 생각도 금물이다. 설령 대순진리회가 교회유형으로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지의 뜻 곧 이 세상에 도통진경을 이루겠다는 뜻이 미진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유형변화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조직은 시간이 감에 따라 유형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유형변화를 어떻게 모색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색과 대응을 위한 교리 곧 중학을 발전시키는 일이 기초가 되지 않고는 결코 이를 수 없는

33) 『대순지침』, pp.99-104.

유형변화의 길이다.

대순진리회의 유형변화를 위한 과정에서 끝내 지켜야 할 점은 종파 유형으로 출발한 대순진리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형변화의 길을 갈 수 있는나이다. 이미 기성종파로 유형변화가 이루어진 대순진리회에 있어 종파유형의 특징 중 결코 버릴 수 없는 특징을 담보하면서 발전시키는 유형변화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다. 종파유형의 특징은 한마디로 교회유형에 대한 대안적(alternative)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종파유형의 탄생은 대개의 경우 교회유형을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종파유형의 출발 당시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의 문제가 이미 교회유형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종파유형은 교회유형에 대해 대안적 종교조직으로 시작된다.

대순진리회의 경우 종파유형으로서의 대안적 성격은 지금 여기에서 후천개벽의 도통진경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도통진경의 세상은 기성종파나 교회유형으로 변화의 길을 갈 때 아니면 설령 제의나 소멸의 길을 갈 때라도 결코 잊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최고의 가치이며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종파유형의 특징 또는 교회유형의 특징을 드러내고 지켜나가는 일에 소홀해서도 안 되며 지체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상을 단순히 유지하고자 해서는 안 되며 현상을 타파하여 도통진경의 세상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진력이 요청된다.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야 하는 도통진경의 세상은 종교조직으로서 대순진리회를 넘어선다. 도통진경의 세상은 어느 한 종교조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순진리회가 유형변화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스스로 갖게 되는 특징은 역사의 시행착오 그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척결해야 할 의지가 대순진리회 자신에게 서려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여타 종교조직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대순

진리회가 될 수 있으며 대순진리회는 유형변화를 피하면서도 종파유형으로서 처음 뜻을 잃지 않고 발전하는 종교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성종파로서의 대순진리회는 지금 여기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마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회유형에 한 발 다가선 기성종파로서 대순진리회는 도통진경을 향한 혁명적 전환의 길을 요청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 고병철, 「대순진리회의 전개와 특징」,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한국종교교단연구 I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김종서, 『종교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김항제, 『통일교의학 I』, 아산: 선문대출판부, 2002.
- 김홍철 외, 『한국신종교의 개벽사상』, 익산: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2.
-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 경세원, 1996.
-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1~24집,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2014.
- 박광수 외, 『신종교연구의 방법론과 과제』, 익산: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3.
- 박상규, 「대순진리회 조직과 그 특성」, 『종교연구』 70, 2013.
- 비판사회학회 엮음, 『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12.
-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1986.
-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2005.
-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서울: 문사철, 2011.
- _____,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2013.
-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나남, 2010.
- 정규훈, 『한국의 신종교』, 서울: 서광사, 2001.
- 캐서린 벨, 『의례의 이해』, 류성민 옮김,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3.
- 토마스 F. 오데아, 『종교사회학입문』, 권규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 Becker, Howard, *Systematic Sociology*, New York: Jone Wiley & Sons, 1932.
- Bellah, Robert N., *Beyond Belief*, New York: Harper & Row,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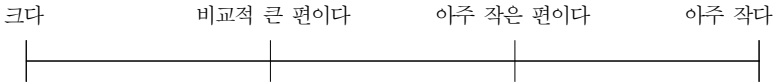
- Clarke, Peter B., eds., *Encyclopedia of New Religions Movements*, London: Routledge, 2006.
- Clarke, Peter B., *New Religions in Global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2006.
- Glock, Charles Y. and Rodney Stark, *Religion and Society in Tension*, Chicago: Rand McNally & Co., 1965.
- Hill, Michael., *A Sociology of Religion*, London: Heinemann, 1980.
- Hoekema, Anthony A., *The Four Major Cults*, Michigan: W & E Publishing Co., 1986.
- Niebuhr, H. Richard,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1957.
- Partridge, Christopher, *New Religions A Guid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Robertson, Roland, *The Sociological Interpretation of Religion*, New York: Schocken Books Inc., 1984.
- Sweat, Anthony., *Mormons An Open Book*, IN: Ensign Peak, 2012.
- Weber, Max, *The Sociology of Religion*, trans. E. Fischhoff, Boston: Beacon Press, 1963.
- Wilson, Bryan R., *Religious Sects*, New York: McGraw-Hill, 1970.
- Yinger, J. Milton, *Religion in the Struggle for Power*, Durham: Duke Univ., 1970.
- <http://www.idaesoon.or.kr>
- <http://www.daos.or.kr>
- <http://en.wikipedia.org/wiki/3HO>
- <http://en.wikipedia.org/wiki/Hutterite>
- http://en.wikipedia.org/wiki/Ghost_Dance
- <http://en.wikipedia.org/wiki/Quakers>

종교조직유형론으로 본 대순진리회의 유형에 대한 정성평가서

종교조직(Religious Organization)의 유형론(Typology)이란 종교조직에 대한 이상형(Ideal Type)을 만들고 그에 대한 위상을 조사함으로써 해당 종교조직의 유형을 알아보고 유형변화를 위한 덕목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연구 중 하나입니다. 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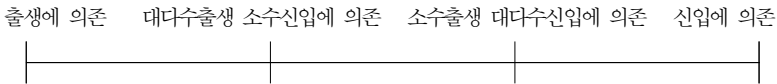
(표시 방법은 해당 난에 O표 하시면 됩니다.)

1. 대순진리회의 규모



#(참고사항) 규모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나 여기서는 원불교가 12만 5천명으로 인구센서스(2005년)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이를 비교로 해서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2. 도인의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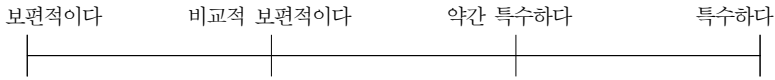
3. 도인의 가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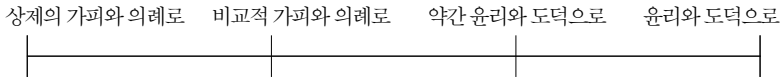
4. 타종교조직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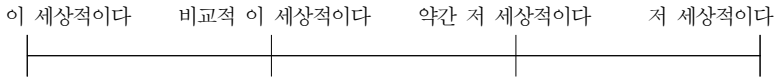
5. 진리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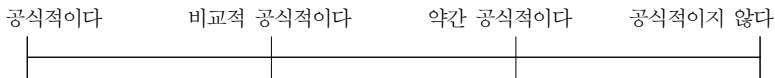
6. 대순진리회의 구원관



7. 구원의 지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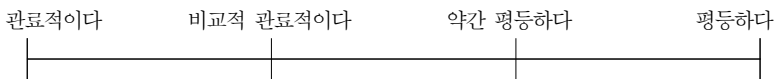
8. 종교적 의례



9. 성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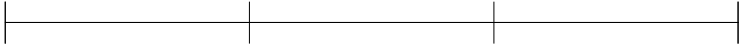


10. 조직구조



11. 경전해석

자유롭게 해석 비교적 자유롭게 해석 약간 문자적으로 해석 문자적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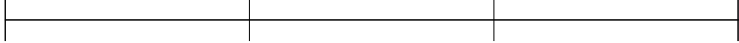
12. 세상과의 관계

타협적이다 비교적 타협적이다 약간 비타협적이다 비타협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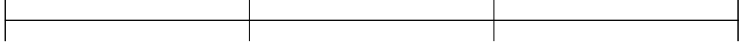
13. 도인의 사회적 지위

주로 중상층이다 비교적 중상층이다 약간 하층이다 하층이다



14. 사회윤리적 성격

보수적이다 비교적 보수적이다 약간 급진적이다 급진적이다



15. 대순진리회의 물질 자원

풍부하다 비교적 풍부하다 약간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bstract▪

A Study of Type of Daesoonjinrihoe as a Established Sect and It's Appraisal

Kim Hang-je

Sunmoon University

Typology of religious organization is a useful analysis from the stand point of sociology of religion. A study on the change of type of religious organization according to typology is a academic responsibility. This study can also make a religion prepare theoretical shape for the future of the religion.

Although Daesoonjinrihoe now becomes a established sect, Daesoonjinrihoe should retain characteristics as a alternative sect. This feature as a alternative sect is an important identity of Daesoonjinrihoe which was established to criticize and overcome established sect.

Dotongjingyeong is an ideal world of Daesoonjinrihoe. The foundation of Dotongjingyeong as an ideal world is essential value and reason of existence of Daesoonjinrihoe. For this reason, Daesoonjinrihoe should not just maintain its position but lead to reach the Dotongjingyeong here and now.

Dotongjingyeong which should be built here and now is beyond Daesoonjinrihoe as a religious organization, because Dotong-

jingyeong is new heaven and new earth. Daesoonjinrihoe should put an guard against trial and error through change of type. Otherwise, Daesoonjinrihoe can not retain characteristics as an alternative sector. Now Daesoonjinrihoe may be at a revolutionary turning point for the foundation of Dotongjingyeong.

Key words : Daesoonjinrihoe, Typology of Religious Organization, Established Church, Sect, Established Sect, Dotongjingyeong, The Change of Type

◎ 투 고 일 : 2015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5년 7월 24일~8월 5일

◎ 계 재 확 정 일 : 2015년 10월 6일